



KOREA WINE CHALLENGE



칠레 Icaño 화산

# KWC 2022 수상 와인 릴레이 칠레 CHILE

코리아와인챌린지(이하 KWC) 2022에서 칠레가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최다 수상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칠레의 활약상이 대단하다. 많은 심사위원은 칠레 와인의 눈부신 발전과 품질적 우수성에 대해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한국 시장에 열의와 열정을 보여주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칠레의 주요 와인 산지와 KWC 수상 와인을 소개한다.

글 임효진 사진 장영수, Wikipedia, 각 와인너리 및 수입사





길이 4,270km, 폭 64km의 가늘고 길게 뻗은 나라, 칠레의 독특한 지형은 칠레만의 와인 스타일을 만들어낸다. 동서 폭은 좁지만 그 안에서도 서쪽의 태평양과 동쪽의 안데스산맥이라는 상반된 자연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칠레의 와인 산지는 국토의 중간 지대에 집중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지역은 중심부인 센트럴 밸리이며 와인 산지로 유명한 마이포 밸리에서 마울레 밸리까지 아우르는 수도 산타아고가 위치해 있다.

칠레의 와인 산지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아타카마(Atacama), 코킴보(Coquimbo), 아콩카과(Aconcagua), 센트럴 밸리(Central Valley), 남부 칠레(Southern Chile)이다. 이에서 세분되는 주요 산지와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한 뒤에 KWC 2022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와이너리를 만나보도록 하자.

## 칠레의 와인 산지

### ACONCAGUA 아콩카과

아콩카과는 칠레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산지로 수도인 산티아고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포도 재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뜨겁고 건조한 기후로 인해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이곳에서 재배된 까베르네 소비뇽, 시라, 메를로의 품질은 이전의 견해를 완전히 뒤집었다. 아콩카과강과 해안가의 신선한 기후의 영향을 받아 섬세하고 우아한 레드와인이 탄생되기 때문이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칠레를 가르는 안데스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인 아콩카과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산에서 녹아 대지로 공급되는 물에는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관개할 때 유용하다.

### BIO BIO 비오 비오

비오 비오는 대부분의 지역보다 바람, 비, 기후 변화가 뚜렷한 칠레 남부에 있는 와인 생산지이다. 향기로운 포도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름나 있다. 피노 누아,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등이 재배되는데 최근에는 아로마틱한 화이트 품종과 피노 누아 같은 섬세한 와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청포도를 다루는 포도원은 45%를 차지하고 피노 누아 생산 비중은 40%에 이른다. 그만큼 화이트와 레드 품종이 골고루 재배된다.



## CACHAPOAL 카차포알

카차포알은 산티아고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중앙 와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기후는 세부 지역별로 차이가 커서 안데스산맥의 찬 지대부터 라펠호 주변의 가장 더운 지역에 이르기까지 매우 대조적이다. 일교차가 무려 20°C에 이르며 서쪽에서 동쪽을 가로지르는 카차포알 강이 농업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곳은 레드 와인 생산에 특화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포도 품종으로는 까베르네 소비뇽, 까르미네르가 있다. 레드 와인 생산이 전체 와인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화이트 품종으로는 소비뇽 블랑, 샤르도네 등이 재배된다.

## CASABLANCA 카사블랑카

1980년 중반 샤르도네가 처음 식재되면서 칠레 와인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곳이다. 칠레 와인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 서늘한 지역을 찾던 양조인 파블로 모란데에 의해 처음으로 이곳에 포도밭이 일궈졌다. 이곳은 태평양 해안에서 30km 거리에 위치해 훔볼트 해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서늘한 것이 특징이다. 산티아고에서 태평양을 향해 북서쪽으로 향하는 카사블랑카는 소비뇽 블랑과 샤르도네 재배지로 유명하다. 레드 품종으로는 피노 누아와 메를로의 질이 좋은 것으로 손꼽힌다.

## COLCHAGUA 콜차구아

센트럴 밸리에 속한 콜차구아는 오래전부터 숙성력 좋은 레드 와인의 명산지로 이름나 있다. 이 지역은 산티아고에서 남쪽으로 약 160km가량 떨어져 있으며 안데스산맥에서 태평양까지 서쪽으로 뻗어 있다. 콜차구아는 북쪽의 마이포보다 약간 시원한 편이지만 지중해성 기후를 띤다. 해발 650피트에서 3,000피트 사이에 포도밭이 분포되어 있어 언덕 위로 올라가면 시원한 바람이 분다. 까베르네 소비뇽, 까르미네르, 시라와 같은 레드 품종이 잘 자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말베크, 뽀피 베르도, 메를로도 재배한다. 최근에는 와이너리들이 해안가 쪽으로 포도밭을 확장하면서 소비뇽 블랑과 같은 신선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품종을 재배하는 추세이다.

## CURICÓ 꾸리코

꾸리코 밸리는 동쪽의 해안산맥이 태평양의 영향을 막아 대륙성 기후를 띤다. 일교차가 몹시 큰 이곳에서는 섬세하고 풀바디한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이 빛어진다. 주요 품종으로는 까베르네 소비뇽, 소비뇽 블랑이 있다. 18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온 포도나무가 이곳에 심어지면서 꾸리코 산지가 형성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와인 산업에 영향을 미친 것은 1970년대로 확인된다. 스페인 와인의 전설인 미구엘 토레스가 칠레에 진출했을 때 선택한 땅이다. 다양한 토양은 안데스 산맥의 석회암과 화산암에서 유래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층적층에 의해 퇴적되었다. 각 품종에 가장 적합한 토양 조건을 선택해 잠재력 있는 와인을 빚는다.



## MAIPO 마이포

칠레의 가장 역사적이며 대표적인 와인 산지이다. 이곳은 15세기에 처음 포도나무가 식재되었으며 19세기에 보르도의 포도 품종(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등)이 유입되었다. 종종 '남미의 보르도'로 불리기도 한다. 그만큼 풍부한 과실미를 보이는 와인이 나며, 일교차가 크고 토양에 바위와 자갈이 함께 섞여 있어 특히 까베르네 소비뇽이 자라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수도 산티아고에서는 약 100km 남쪽, 안데스산맥과 해안산맥의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칠레의 와이너리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와이너리에서 마이포 산지를 근거지로 선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MAULE 마울레

마울레는 센트럴 밸리 최남단에 자리하고 있는 와인 산지이다. 약 100km에 걸쳐 뻗어 있어 칠레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북쪽 지역보다 시원한 기후를 보이며 연간 강우량이 더 많다. 강렬한 햇빛이 있는 낮과 서늘한 밤이 이어지면서 산미의 균형과 성숙도가 좋은 포도가 난다. 마울레는 오랫동안 와인을 많이 생산하는 것에 승부를 걸어왔지만, 오늘날에는 토착 품종과 국제 품종을 다양하게 재배하며 질적으로 훌륭한 와인을 추구하고 있다. 마울레 밸리에서는 까베르네 소비뇽이 많이 재배되며, 올드바인에서 난 까리냥으로 특별한 와인을 빚기도 한다.



칠레 발파라이소



## SAN ANTONIO 산 안토니오

산티아고에서 서쪽으로 100km 지점에 있는 산 안토니오는 카사블랑카 밸리 남쪽, 해안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포도밭은 주로 해안에서 4km 내륙 쪽에 자리 잡고 있지만 바다와 가까운 만큼 포도 재배 시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기온이 서늘해 포도가 늦게 익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배 중심 산지들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상쾌하면서도 미네랄이 잘 느껴지는 화이트 와인이 강세다. 소비뇽 블랑, 피노 누아, 시라, 샤르도네 등이 생산된다. 관광과 같은 와인 산업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



## KWC 2022 수상 와이너리

### ▶ 7 Colors

7컬러즈는 칠레 중부 전역에 서식하는 작은 새로, 7컬러즈 와이너리 이름의 영감이 되었다. 일곱 가지 색의 깃털을 가지고 있어 7컬러즈의 다채로운 매력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칠레의 대표 와인 생산자인 마이포 밸리를 중심으로 포도밭을 가꾸고 있으며 독특한 와인 블렌딩과 트렌디한 와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와인의 이미지를 깨고 레이블에 새와 새의 깃털로 와이너리를 표현해 젊은 소비자에게 주목받고 있다. 수입사 씨에스알와인

####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7 Colors Single Vineyard Red Blend



### ▶ Bodegas Tagua Tagua

1838년 설립된 보데가스 타구아 타구아는 5대에 걸쳐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유서 깊은 와이너리다. 현재는 칠레 센트럴 밸리를 대표하는 가족 경영 와이너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들은 칠레 와인 산업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폭발적인 표현력을 보이는 아이콘 와인에 자부심을 내비친다. 또한 가족 및 회사 직원들에 대한 복지, 환경의 지속가능성 실현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수입사 무학주류상사

####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Bodegas Tagua Tagua Descomplicados Syrah

### ▶ Bouchon Family Wines

부송 패밀리 와인즈의 역사는 약 1세기 반 전 모험적인 프랑스 청년의 꿈에서 시작된다. Emile Bouchon은 1887년 고향인 프랑스를 떠나 칠레에서 와인메이커로서 10년 간 경력을 쌓은 후 콜차구아에 작은 와이너리를 설립한다. 지금은 그의 자손들이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부송 패밀리 와인즈는 마을에 계곡에 위치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지중해 기후를 잘 활용하여 질 좋은 와인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친환경적인 와인을 생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수입사 미수입

####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Bouchon Family Wines Mingre



### ▶ Casas del toqui

까사 델 토키는 보르도의 주요 와인 생산자였던 사또 라 로즈 트랑토돈과 전통적인 와인 생산자 가족이 협력하여 만든 와이너리로 1994년에 설립되었다. 2010년, 그들의 유산은 와인에 열정을 가진 코트 패밀리에게 전달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의 포도밭 대부분은 산티아고에서 남쪽으로 약 85km 떨어진 카차포알 밸리에 있다. 중적도와 지중해 기후를 잘 활용해 포도를 재배하며 좋은 기술력으로 고품질 와인을 생산한다. 수입사 BK트레이딩

#### 수상 와인리스트

**Gold** Court Rollan Mater

**Bronze** Court Rollan Pater

**Bronze** Court Rollan Blanc De Blancs Extra Brut

**Bronze** Court Rollan Nepos Merlot

### ▶ Cono Sur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칠레의 코노수르. 1993년에 설립된 코노수르는 포도 재배와 와인 양조의 경계를 확장하며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규모가 큰 만큼 산 안토니오, 마이포, 카사블랑카, 비오 비오, 카차포알 등 칠레의 내로라하는 산지에서 포도밭을 가꾸고 있다. 현재 아이콘 와인, 친환경 와인, 프리미엄 와인 등 다양한 가격대의 포트폴리오로 소비자에게 다가선다.

수입사 신세계 L&B

#### 수상 와인리스트

**Gold** Cono Sur Silencio

**Silver** Cono Sur Single Vineyard Chardonnay

**Silver** Cono Sur 20 Barrels Syrah

**Silver** Cono Sur 20 Barrels Chardonnay

**Silver** Cono Sur Ocio

## ▶ Invina

칠레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와인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 후버 가문은 1999년 칠레로 이주한다. 포도 재배와 와인 분야에 서 경험을 쌓다 2007년 Invina를 설립해 마울레 밸리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양질의 와인 생산에 뛰어들다. Invina가 소유한 5곳의 포도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투코는 해안산맥에 자리하고 있어 낮 기온이 서늘하다. 깊은 점토질의 토양은 충분한 습도를 유지하므로 덩굴이 적당히 자라고 포도가 천천히 성숙하는데, Invina는 바투코 떼루아를 충실히 담은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수입사 PK 인터내셔널

### 수상 와인리스트

- Best Chile** Luma Chequen Gran Reserva Carmenere
- Gold** Sierra Batuco Reserva Cabernet Sauvignon
- Gold** Cuartel 4A
- Gold** Luma Chequen Gran Reserva Cabernet Sauvignon
- Silver** Secano
- Bronze** Por Fin
- Bronze** Ojos Verdes



## ▶ Montgras

그라스(Gras)가문의 형제 에르난(Hernan)과 에두아르도(Eduardo)는 또 한명의 설립자 크리스티안 하트윅(Cristian Hartwig)과 함께 그들이 쌓아온 와인메이킹 경험과 자본을 바탕으로, 1993년 콜차구아 밸리에 가장 모던한 와이너리를 설립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몽그라스는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칠레 와이너리이다. 2,000ha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고, 연간 1백만 케이스의 와인을 생산한다. IWSC에서 선정한 Best Chilean Wine Producer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다. 수입사 동원와인플러스

### 수상 와인리스트

- Gold** Montgras Intriga
- Silver** Montgras Day One Carmenere
- Silver** Montgras Ninquén
- Bronze** Montgras De Vine Pinot Noir
- Bronze** Montgras Intriga Máxima

## ▶ Neyen Apalta Estate

네이엔 아팔타 이스테이트의 포도밭은 안데스산맥과 해안산맥이 합쳐져 반달 모양을 이루는 독특한 곳에 위치한다. 까베르네 소비뇽 덩굴은 1889년에, 까르미네르는 1936년에 심어져 그 전통과 품질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포도 덩굴의 나이와 깊은 뿌리 체계 덕분에 네이엔의 포도밭은 최소한의 개입이 필요하며 자연 배수가 가능하다. 여기에 반건조 지중해성 기후까지 더해져, 포도가 천천히 성숙되어 균형감 있고 우아한 와인이 생산된다. 수입사 문도비노

### 수상 와인리스트

- Silver** Primus Carmenere

## ▶ Scarlet Vine

스칼렛바인은 미국의 저명한 와이너리, Delicato Family가 칠레에서 선보이는 프리미엄 와인이다. 이들은 마이포 밸리 상류 산 중턱에 오래된 포도밭에서 재배를 시작하였다. 이 포도밭은 지진, 눈, 바람에 의해 토양과 영양분이 벗겨진 척박한 상태였다. 포도 덩굴들은 이곳에서 버티어 자라났고, 내추럴하며 정형화되지 않은 형태의 카베르네 소비뇽이 탄생되었다. 이들의 와인에선 잘 익은 베리와 토피 향, 바닐라 향 등이 우아하고 부드럽게 어우러진다. 수입사 아영 FBC

### 수상 와인리스트

- Bronze** Scarlet Vine

## ▶ Vda Viña De Aguirre

1955년 칠레 와인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믿었던 프랑스 농업학자 Pedro Etcheberry는 칠레로 건너와 와인 산업에 뛰어들다. 그의 꿈과 정신은 그의 아들과 며느리를 거쳐 손주들이 이어가는 중이다. 오늘날까지 가족 경영 100%로 운영되는 Vda Viña De Aguirre는 현대적인 첨단 관개 시스템과 생산 라인을 갖추며 질 좋은 와인 생산에 열중하고 있다. 연간 2200만 병에 가까운 물량을 전 세계 45개국 이상에 판매하며 세계적인 와이너리로 발돋움하고 있다.

수입사 미수입

### 수상 와인리스트

- Silver** Sol De Chile Reserva
- Silver** Pater Familiae Filius
- Silver** Sacred Tree Gran Reserva Carmenere
- Silver** Santa Estampilla Gran Reserva Cabernet Sauvignon
- Bronze** Santa Estampilla Gran Reserva Syrah
- Bronze** Sacred Tree Gran Reserva Merlot



### ▶ Viña Aresti

칠레 와인 산업에서 오랜 기간 경력을 쌓아온 돈 비센테 아레스티 아스티카는 1951년에 비냐 아레스티를 설립한다. 꾸리코 밸리에 위치한 이 와이너리는 가족 경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3대에 걸쳐 성공적으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최신식 설비와 지하 오크 배럴룸, 저장고 등을 완비해 우수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며 프리미엄 와이너리로 성장하고 있다. 이들의 와인은 KWC를 비롯해 세계 유수의 와인 품평회 및 매체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수입사 KS와인

#### 수상 와인리스트

**Gold** Aresti Cabina56 Reserva Chardonnay



### ▶ Viña San Pedro Tarapacá S.A

비냐 산 페드로 타라파카(이하 VSPT) 그룹은 세계 20대 와인 생산업체이자 칠레의 프리미엄 와인 및 스파클링 와인을 판매하는 선두주자 그룹이다.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기반으로 한 여러 와이너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카차포알, 꾸리코, 마이포, 마울레 등 특색 있는 산지에서 포도밭을 관리한다. VSPT 그룹에 속한 칠레 와이너리로는 산 페드로, 타라파카, 레이다, 산타 헬레나 등이 있다. 수입사 다수

#### 수상 와인리스트

**Gold** Gatonegro Chardonnay

**Gold** Santa Helena Chardonnay

**Silver** 1865 Selected Collection Pisco Barrel Aged

**Silver** San Pedro Signature Carmenere

**Silver** Cabo De Hornos

**Silver** Urmeneta Chardonnay

**Bronze** Mision Cabernet Sauvignon

**Bronze** Gran Reserva Tarapacá Carmenere

**Bronze** 1865 Unique Cabernet Sauvignon

**Bronze** 9 Lives Chardonnay

**Bronze** 1865 Selected Blend Heritage Blend

**Bronze** Gatonegro Carmenere

**Bronze** La Celia Elite Malbec

**Bronze** Gran Reserva Tarapacá Chardonnay

**Bronze** Santa Helena Reserva Cabernet Sauvignon

**Bronze** Tarapacá Reserva Biodiversidad Edition Red Blend

**Bronze** Gran Reserva Castillo De Molina Tributo Carmenere

**Bronze** 1865 Selected Vineyards Carmenere



### ▶ Viña Carmen

비냐 카르멘은 1850년에 크리스티안 란즈에 의해 설립되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만큼 최초라는 수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칠레 최초의 와이너리, 오늘날 칠레의 대표 포도 품종이 된 까르미네르 와인을 만들고 판매한 최초의 와이너리 등 비냐 카르멘을 중심으로 칠레의 와인 산업이 발전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냐 카르멘은 170년 이상의 경력을 토대로 유기적이며 지속 가능한 와인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있다. 수입사 롯데칠성음료

####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Carmen Gran Reserva Cabernet Sauvignon





산 페드로의 Maipo 산지 밭

### ▶ Viña Siegel

Alberto Siegel Dauelsberg는 유명한 포도밭을 관리하는 포도 재배자였다. 이후 그는 농학을 공부했고 독일의 몇몇 와이너리에서 경험을 쌓다 콜차구아 계곡에 포도를 심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비냐 시겔이다. 그들의 주요 포도밭 중 하나는 안데스산맥 돌출부에 위치한 알토 콜차구아다. 이곳에서 생산된 와인은 계곡의 독특한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색상과 구조감이 뛰어나다. 그들은 이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와인을 생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입사 와이브라더스컴퍼니

####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Siegel Unique Selection

**Bronze** Siegel Red Blend 1234

**Bronze** Siegel Ketrán

**Bronze** Siegel Single Vineyard, Carmenere

### ▶ Viña Valdivieso

비냐 발데비에소는 1879년, 알베르토 발데비에소가 '삼페인 알베르토 발데비에소 S.A'를 설립한 데서 시작한다. 이 회사는 칠레와 남아메리카에서 최초로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하였으며 이후 칠레와 남미 시장에서 와인업계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다. 현재는 마울레 계곡, 비오비오 계곡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의 포도를 사용하여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발데비에소는 칠레에서 가장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자랑하며 양질의 와인을 공급한다. 수입사 이지와인

####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Caballo Loco Grand Cru Maipo

**Silver** Valdivieso Single Vineyard Cabernet Franc

### ▶ Viña Von Siebenthal

스위스의 변호사이자 와인 애호가였던 Mauro von Siebenthal은 와인 양조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1998년 친구들의 재정적 지원으로 그는 마침내 와이너리를 설립하게 된다. 주요 포도원은 아콩카과 계곡 판케우에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포도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포도를 재배하고 있다. 비냐 폰 시벤탈의 철학은 바로 '조화'. 조화를 지향하는 철학 덕분에 그들의 와인은 매우 우아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수입사 루벵코리아

####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Viña Von Siebenthal, Carmenere

### ▶ Viñedos Errazuriz Ovalle SA.

Don Maximiano Errázuriz는 아콩카과 계곡에 최초로 프랑스 포도 품종을 심은 인물로 1870년 Viña Errázuriz를 설립했다. 그의 독창성과 창의성은 현재까지도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져 세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와이너리로 자리매김했다. 아콩카과의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관개를 위한 좋은 위치는 포도를 재배하기에 이상적이다. 이에 더해, 그들은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최고급 품질의 와인 양조에 힘을 쏟고 있으며 환경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수입사 월드와인

#### 수상 와인리스트

**Gold** Marchique Private Collection

### ▶ Viñedos Veramonte

Viñedos Veramonte는 지속가능성과 환경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와이너리이다. 콜차구아, 까사블랑카 등에 위치한 유기농 포도밭에서 포도를 재배한다. 그들의 와인은 우아하고 진솔하다. 정성껏 일군 페루아의 성격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비료나 화학 약품들도 일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토양 및 미생물들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Ecocert의 인증을 받아 전 세계에서 유기농으로 인정받고 있다. 포도밭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에서 알 수 있듯, 정성을 담은 양질의 와인을 생산한다. 수입사 문도비노

#### 수상 와인리스트

**Gold** Ritual Chardonnay

**Bronze** Ritual Pinot Noir